



소 속 **홍보실**

전화번호	052-216-2229, 2232	팩 스	052-216-5907
보도일시	배포시	배포일시	2016년 2월 10일 오전 10시

석유공사 김정래 사장, “설연휴는 현장에서” 취임직후 현장경영 강화 - 현장점검 및 비상시 위기대응 강화로 차질없는 근무태세 당부 -

-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2월 5일(금)부터 2월 13일(토)까지 설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국내 비축기지 및 해외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취임직후 강도 높은 현장경영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.
-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월 2일(화)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, 설 연휴를 대비하여 공사 주요현장 방문을 통해 공사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목적이 있음.
- 공사 김정래 사장은 지난 2월 5일(금) 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하여 석유탱크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설 연휴 근무태세를 점검하는 등 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비상시 재난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함.
- 특히, 지난 서산비축기지 방문은 2월 7일(일) 북한이 미사일을 발표하기 전부터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지도 및 감독강화를 통해 비상시 에너지 안보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한 것으로서,
- 공사 김정래 사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본사에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, 공사 9개 비축지사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하여 비상사태에 신속히



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함.

- 또한 공사는 북한의 과거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직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하는 사이버 보안태세를 강화함.
- 한편, 공사 김정래 사장은 캐나다, 미국, 영국 등 공사 주요 해외 사업장을 돌면서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업현황을 보고받는 등 설 명절 휴가를 반납하고 강도 높은 현장경영을 실시할 계획임.